

[종합]

정부, AI발생 농가·위험지역 밖 농가 지원 철회

“살처분 하라 해놓고...” 강력 반발

농민들 “예방 소홀 책임” 이해할수 없는 규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직접 발생한 농가와 닭·오리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위험지역 밖의 피해농가들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돼 피해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살처분 농가라 하더라도 AI가 직접 발생한 농가와 위험지역(발생지점으로 부터 3km이내) 밖의 피해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해

당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직접 발생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발생농가 주변의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 ‘직접 발생농가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정부는 “AI 직접 발생농가의 경우 닭·오리 밀식 사육 등 예방 소홀로 인한 책임을 묻

는 차원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한 영암의 농장 등 전남지역 10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가구당 최고 1천400만원)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 영암 농장 이외에도 AI가 발생한 전북 익산 지역을 드나들었던 차량이 통과한 나주·영암·구례·해남·무안 등 5개 시·군 9개 농장은 3km 밖의 지역이어서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9개 농장이 닭·오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는 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을 뿐만 아니라 재입식이 곧바로 이뤄져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이 배제된 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모두 따랐고, 재입식하는 과정이 1개월 이상 걸리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노당·민노총·기아차 노조 등 68곳

불법 폭력 시위 단체 규정

행안부 25곳은 보조금 지급 제외...노동계 반발

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기아차 노조 등 68개 단체가 불법 폭력 시위단체로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중 25개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1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과격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 현장에서 소속 회원이 구속된 단체 등을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해 이들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68곳의 단체를 범국민운동본부, 기아차 노조 등 68개 단체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통보한 사실은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불법 폭력 시위를 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 고 지목한 68개 단체는 FTA범국민과 전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랜드, 기아차노조, 전국건설노조, 민주노동당, 타워크레인노조 광

주·전라지부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68개 단체의 불법·폭력시위 전력 자료를 근거로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25개 단체의 명단을 작성했으나,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선정할 결과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이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데 ‘불법폭력단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 세금을 쥐락펴락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6·15 남북공동행사’ 서울 개최 승인 방침

통일부 민간차원 행사로

정부는 남과 북이 작년 11월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 서울 개최’안을 승인한다. 이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일 백남청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간 차원의 6·15 행사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김 장관의 이런 입장은 정부가 서

울에서 열리는 민간 차원의 6·15 행사 개최를 승인함으로써 북측 인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6·15 행사에 정부 당국자가 참여하는 문제와 정부 차원에서 행사에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총리회담에서 남북은 올해 6·15 행사를 당국과 민간 참여 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남극대륙 서북쪽 끝 사우스셰틀랜드 군도의 킹조지섬에서 서식하는 턱끈펭귄(Chinstrap penguin) 무리들. /연합뉴스

남극 ‘펭귄마을’ 한국이 지킨다

환경부 특별보호구역 지정

남극대륙 서북쪽 끝 사우스셰틀랜드(South Shetland) 군도의 킹조지(King George)섬. 펭귄들의 낙원으로 유명하다. <사진>

한국의 남극 연구기지인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펭귄마을’이다. 정식 명칭은 ‘나펠스키 포인트’이지만 펭귄들이 모여사는 곳이라서 세종기지 대원들은 이렇게 명명했다.

한국에서 비행거리로 2만2천km 떨어져 있는 머니먼 곳이지만 이곳의 펭귄들은 이른바 내년 봄부터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다.

환경부가 이 지역을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봄부터 이 지역의 자연보호를 한국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남극협약 사무국에 펭귄마을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서’와 ‘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펭귄마을 중 100ha를 특별보호구역 대상으로 제안했다. 한국의 제안은 오는 6월2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열리는 31회 남극협약당국총회에서 공식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된다. 펭귄마을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는 한국이 남극에서 관리하는 첫 번째 특별보호구역이 된다. /연합뉴스

한국식탁에도 ‘GMO 옥수수’

식품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가 1일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자 ‘식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5만7천여의 식품 GMO 옥수수가 1일 울산항을 통해 수입됐다. 이번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은 그동안 사료용과는 달리 식품 첫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식탁 불안과 함께 GMO의 안전성과 표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번 GMO 수입

이 특별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물엿·역상과당·올리고당 등의 형태로 과자·음료수·빙과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널리 쓰이는 전분당 원료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GMO를 개발·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등은 유통되는 GMO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100%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GMO 유해성도 여러차례 보고가 됐으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다.

어제 5만 7,000여 첫 수입

유전자 변형...안전성 논란

GMO를 반대하는 단체는 지난 1996년 ‘브라질 너트’의 유전자가 도입된 GMO 콩, 또 200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콩 유전자를 넣은 완두콩이 알레르기를 유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전분당이 들어가는 각종 과자와 음료, 식용유와 간장 등 가공식품은 가공공에 열처리를 거치면서 삽입 유전자가 파괴되기 때문에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준기기자 jitlee@kwangju.co.kr

100세 넘게 사는 건강 비결 뭘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열심히 적응한다, 보신음식이나 약물에 휩쓸리지 않는다, 잘 느낀다,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한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소장이 4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100세 건강 심포지엄’에 발표할 ‘5가지 장수비결’이다.

박 소장은 “조사를 위해 100세 노인들을 뵈 때마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대부분 집과 밭에서 일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 다”면서 부지런함을 첫째로 꼽았다. 곡식 이관순(100) 할머니는 요즘도 혼자 밭살사를 짓는다.

낙천적이고 감성적인 생활도 장수를 돕는다. 담양 강엄비(104) 할머니는 혼자서 살지만 이웃과 즐겁게 어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동네 일에 참견하고 노래를 즐기며 살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적응하는 것도 장수의 필수 요소로 분석됐다. 박 소장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반드시 공기가 좋고 물이 좋은 곳만은 아니었다”면서 “대부분 100세인들은 한국전쟁의 참혹함을 견뎌냈으며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과 이별하는 큰 고통을

생각이 적극적이다
부지런히 움직인다
환경에 열심히 적응
보약·보신식은 ‘NO’
즐겁고 풍부한 감성

겪거나 지독한 가난의 시달림까지 극복해낸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0세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을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Byeong) by Kim Gyeon-ju.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holding a sign that says '벼룩시장에 내일 열음해...' (I'll have a flea market tomorrow...). A speech bubble next to him says '어느 정도 귀찮을 거야?' (How annoying will it be?). Below the illustration, it says '말썽한 대통령' 싫으십니까?! (Do you dislike the mischievous president?!). The author's name is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wangju Daily (光州日報) featuring a '광고접수안내' (Advertisement Reception Guide). It lists services for job recruitment, real estate, and other advertisements.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001-107-228160 and 062-227-9600, and a fax number 062-227-9500. Email: design@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for May 3rd to 7th. It lists various hiking routes and event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locations like Gyeongju, Gyeonggi-do, and Gyeongju. Each entry includes the date, route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5월 8일(목)' (May 8th, Thursday) and other dates in May. It lists various event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locations like Gyeongju, Gyeonggi-do, and Gyeongju. Each entry includes the date, event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상속한정승인공고' (Succession Limitation Confirmation Notice). It states that the late Kim Hyeon-sung (1924-2008) has passed away, and his estate is being managed. It lists the names of the heirs and the date of the notice.